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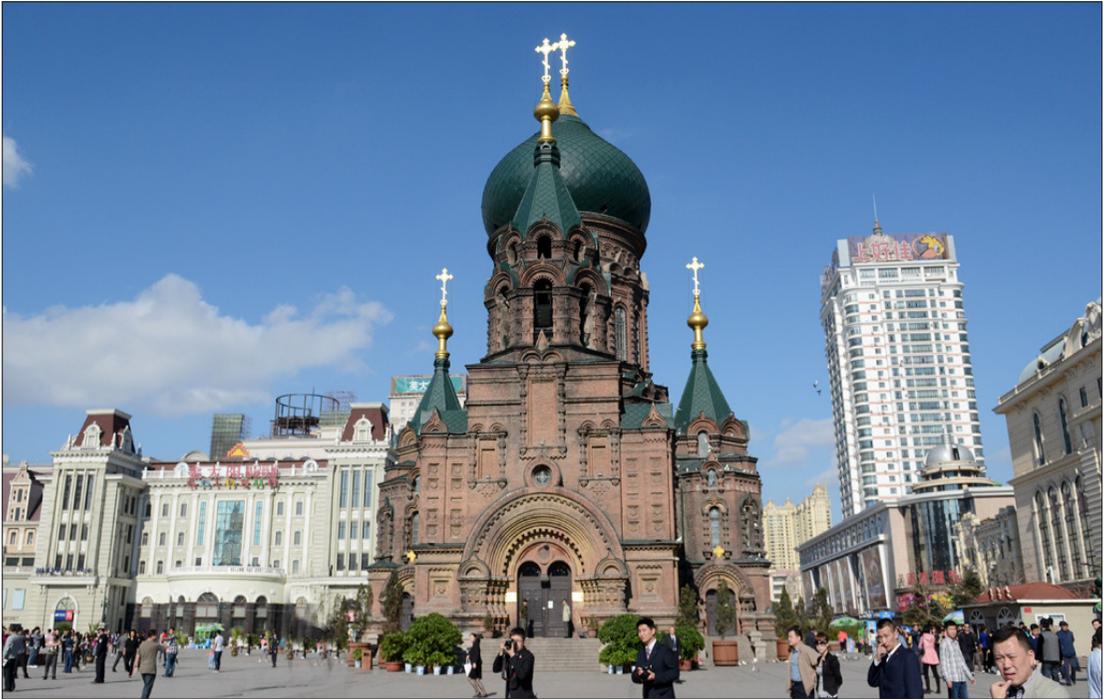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419호

2023.5.7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위치한 성 소피아 성당(사진)은 1907년 목조로 세워졌으나 소실되었다. 현재의 성당은 1923년 재건축을 시작하여 9년간의 공사 끝에 1932년 완공되었다. 높이 53m, 면적 721㎡로 수용인원은 2,000여 명이다.

부활 후 제4주일 (중풍 병자 주일)

성 아카키오스 순교자
(제3조 • 조과 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제3조 부활 찬양송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9,32~4,2 ...253
- 복음경 : 요한 5,1~1599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명하노니 걸을지어다!"

정결의 연못가에, 중풍으로 마비된 한 사람이 누워있었다. 그는 주님 당신을 보고 외쳤도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내가 들어가려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치유를 얻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마비된 채로 누워있나이다.”

연민의 감정을 느끼신 구세주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도다. “나는 너를 위해 육화하였고, 너를 위해 육신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너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였느냐? 침낭을 거둬들여라. 그리고 명하노니 걸을지어다!”

구세주여, 만물이 당신께 복종하나이다. 만물이 당신께 순종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나이다. 거룩한 하느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순절 전례서'에서

토마 사도의 믿음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요, 임금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토마 사도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

다른 제자들은 토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해준다. 그러나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 20,25)라며 그들의 말을 의심한다.

이러한 일이 있고 여드레가 지나 토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토마에게 직접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확인시켜주셨다. 그제서야 토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요한 20,28)이라고 고백한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토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직접 주님을 보거나 만져보지 않고도 주님을 구세주요, 임금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참 믿음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축일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40일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한다. 우리에게 이 인사는 단지 말로만 주고받는 단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 없이 마음으로 믿고 외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듣거나 보지 못한 이런 저런 떠도는 세속적인 소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 즉 사도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 주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읽고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지금 내 곁에 와 계신다 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

토마 사도가 우리의 약한 믿음을 위로해 준다. 사도인 토마도 처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축복으로 이어졌듯이 우리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으로 복음 말씀을 가까이한다면 주님께서 토마 사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곁에도 항상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화장(火葬) 문화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에프렘 트리안다필로폴로스 신부 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다음 무덤에 매장되셨지, 화장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인들도 장례 때 매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매장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돌아가신 분을 매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화장했다면,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수많은 성인들의 성해(聖骸)를 어떻게 모실 수 있었겠으며, 또 어떻게 그 성해를 통해서 축복을 받거나 치유를 경험하거나 힘든 시기에 빛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게 되면, 마치 밀을 봉헌하듯이 그 몸을 원래 왔던 곳인 땅에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영예로운 것이며, 우리는 그 몸을 하느님의 능력으로 부모에게서 받았습니다. 몸은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듯 분쇄기를 이용해서 숫처럼 까맣게 탄 채로 만들어 간단히 없애버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아닙니다.



넥타리오스 성인(+1920)이 에기나 수도원의 수녀들에게 한 조언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초롱초롱하게 해서 경계하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항상 준비하고 있으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지었던 죄와 잘못에 다시 빠져들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죄 가운데 많은 것은 본래적으로도 그렇지만 또한 습관에 의해서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여러분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극복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의욕과 열망을 꺾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5월 8일(월)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 * 5월 10일(수)
오순절 중앙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부활에 관한 성인 금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 영혼 안에도 고귀하고 아름다움 감정이 부활 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주고, ‘정욕과 욕망과 함께’(갈라디아 5,24) 우리 자신의 옛사람에 대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 식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활동

지난 4월 19일,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께서는 튀르키예의 안타키아에서 안티오키아의 요한 총대주교를 만나, 지진 피해자들 구호와 피해를 입은 성당들의 재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우리 대교구와 NCKK에서는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지금까지 총 151,650달러(약 2억 300만원)를 세계 총대주교청에 전달했습니다.

■ 프랑스 신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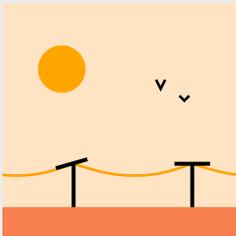
지난 주일(4월 30일), 프랑스에서 Jivko Panev 신부가 서울 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파리 성 세르기오스 신학원 강사, 프랑스 정교회 관련 TV 채널 프로듀서, 정교회 웹사이트 orthodoxie.com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찬예배를 함께 집전하고, 신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며 친교를 나눴습니다.

■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봄 야유회

다음 주일(14일), 성찬예배 후 봄 야유회를 가집니다. 모두 참석하여 부활의 기쁨의 친교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허영심은 신앙생활을 꺾치레로 만든다.

성인의 가르침



어느 초보 수도자가 이제부터 빵을 먹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서약했다. 어느 날 그는 한 사부를 방문했는데, 사부의 기도처에는 이미 방문자들이 많이 있었다. 사부가 준비한 음식으로 모두 식탁에서 식사했지만 초보 수도자는 가지고 온 절은 과자를 꺼내 그것만 먹고 있었다. 그를 지켜본 사부는 식사가 끝난 후에 그를 따로 불러 조언했다.

“그대가 다른 형제들과 식사를 함께 할 때는 음식을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수고를 빼앗아 갈 허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심이 확고해서 그대가 한 서약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면 아무 곳도 방문하지 말고 수도처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